

최저임금 D-15 째각째각

전체회의 한 번 못한 최저임금위, 졸속결정 '불보듯'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올해도 두자릿수 이상 올라야 중소기업업계는 '동결' 주장도



14일 열기로 했던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이 자칫 졸속으로 결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맞춰 올해 16.4%나 급등하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에게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 데도 법적 시한은 이달 28일로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태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근 국회에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기상여금, 숙박비 등 산업범위 확대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내년 임금 결정 과정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노동계마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여서 자칫 반쪽짜리 위원회로 제한된 시간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노동계가 참여하는 첫 전원회의는 무산되고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 자리한 채 오찬을 겸한 간담회 형태로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19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이 때까지 노동계의 동참을 최대한 이끌어내기로 했다.

당초 위원회는 19일에도 노동계 참여 의사가 없을 땐 22일 전원회의부터 노동계 없이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노동계

가 불참하더라도 19일 회의부터 강행하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이달 마지막 주에도 세 차례 더 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으로 이달 28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받아든 고용부 장관은 재심의 요

청 등을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면 된다.

다만 고시전 20일까지는 재심의 등이 가능한 상태여서 아무리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위원회가 최저임금 숫자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르면서 전년도 상승률(7.3%)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이번 결정하는 내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이상 올라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 등 사용자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결정한 정기상여금 등 산업범위 확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는 지난해보다 크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에 대한 대응차원"이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공약을 내세운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의

줄다리가 더욱 팽팽하게 펼쳐질 것이 뻔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위원회에 새로 포함된 공익위원 상당수가 노동계편에 설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속에 공익위원 제시안이 대부분 채택됐다.

산업범위 확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한 소상공인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불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5일 근무하면 하루치 수당을 주는 주휴수당을 산업범위에 포함시키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논의한 뒤 상승률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해에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더 이상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3일(현지시간) 미국 라호야에서 개최된 3GPP(이동통신 표준화 국제 협력 기구) 80차 무선총회의에서 KT 융합기술원 황정우 책임연구원이(사진 오른쪽 마이크 옆) 주파수 기술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T

5G 이동통신 글로벌 표준 완성 국내 '이통3사' 상용화 가속도

5세대(5G) 이동통신 글로벌 표준이 완성됐다.

14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라호야에서 열린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3GPP) 및 80차 무선총회에서 3GPP 및 글로벌 통신사,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 스마트폰 제조사 등 50여개 업체가 5G 국제 표준을 공표했다.

이번 5G 글로벌 표준은 이동통신 데이터 송·수신 모든 영역을 5G로 처리하는 '5G 단독' (SA, Standalone) 규격을 포함한다. 지난해 12월 승인된 '5G+LTE 복합' (NSA, Non-Standalone) 규격은 룽탑에불루선(LTE)과 5G 기술을 융합해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이번 SA규격은 LTE네트워크와 연동 없이 5G네트워크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특화돼 있다.

5G 글로벌 표준 완성에 따라 5G 상용 단말·장비 및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세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은 3GPP에서 합의한 글로벌 표준에 따라 기지국·단말 등의 상용 장비를 개발한다.

SK텔레콤은 '5G 1차 표준'이 완성되기까지 ▲빔포밍, 대용량 다중입출력장치 등 전파 송·수신 기술 ▲네트워크 가상화 ▲대용량, 초저지연 데이터 전송 기술 등 5G 핵심 기술을 3GPP 회원사에 공유하며 표준 완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무선 총회에서 NSA와 SA 주파수 기술이 총 망라된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연구보고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또 같은 회에서 대한민국 5G 상용 주파수인 3.5㎐와 28㎐간 연동기술 표준도 대한민국 사업자를 대표해서 제안했고, 해당 기술의 조기상용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5G 국제표준화정례회를 계기로 5G 상용망 구축 및 상용서비스 준비를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NSA 표준과 새로 확정된 SA 표준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3GPP는 무선통신 관련 국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1998년 창설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술 협력 기구다. 3GPP는 내달부터 5G 표준을 고도화하는 '2차 표준' 작업에 착수한다. /김나인 기자 silkni@

최저임금, 고임금 직종만 일당 더 올려

중소기업중앙회 임금조사 결과

고임금 직종 상승률 두드러져

전년 '7만8014원' 비 11.7% 올라

최저임금 등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중소제조업 생산직의 평균 일당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0여년간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임금 일당을 받고 있는 직종들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8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17개 조사직종 평균 일당은 8만7177원으로 전년의 7만8014원보다 11.7% 올랐다. 이는 2006년 당시의 전년 대비 상승률 11.7%와 같은 수준이다. 올해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때는 2007년(14.2%)과 1995년(12.8%) 밖에 없었다.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은 국가와의 조달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주요 직종 2018 상반기 조사노임(일급))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순위	상위 10개 직종		하위 10개 직종	
	직종명	노임단가	직종명	노임단가
1	CAD설계사 (회로)	124,546	수동물품포장원	73,701
2	전기기사	120,776	요업원	73,806
3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13,782	방직기조작원	74,889
4	기타공학품질관리사	112,887	전자제품조립원	74,906
5	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2,376	식품제조원	75,037
6	배관원	111,565	다이캐스트원	75,625
7	CAD설계사 (기계)	111,099	세척원	75,743
8	전기산업기사	110,947	부품조립원	76,056
9	작업반장	107,247	고무제품생산원	76,552
10	금속재료품질관리사	106,550	용융도금기조작원	76,955

되는 노무비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인다. 중소기업회는 매년 3월 기준으로 매출액 30억원 이상의 중소제조업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당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임금 직종이 저임금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작업반장의 경우 지난해 9만6656원에서 올해 10만7247원으로 11% 올랐다. 작업반장이란 생산공정 및 제조현장의 팀장 등 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반면 단순노무종사원은 지난해 6만8899원에서 올해 7만1837원으로 4.3% 오르는데 그쳤다.

우리 이동차차, 목재선별분류, 각 생산라인의 단순작업, 식당 및 각종 현장의 경비원 등을 단순노무종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당이 가장 높은 직종은 12만4546원을 받는 CAD설계사(회로)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기사(12만776원) 등이었다. /김승호 기자 bada@

부천·시흥·안산 출근길 빨라진다... 내일 '소사-원시선' 개통

부천 소사동과 안산 원시동을 잇는 소사~원시선이 개통한다. 자동차로 1시간 30분 걸렸던 이동거리가 33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잇는 '소사~원시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6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사~원시선은 부천 소사역을 출발해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 원시역까지 23.3km 구간 정거장 12개를 지난다. 지난 2011

년 4월 착공해 7년 2개월간 건설공사와 시설물 안전 검증 및 시운전 등을 완료했다.

이번 소사~원시선 개통으로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통근길이 빨라질 전망이다.

부천시 소사동에서 안산시 원시동까지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걸리던 곳을 전철로 33분에 오갈 수 있게 됐다. 소사역과 초지역에서 경인선(서울1호선), 안산선(서울4호선)과 환승대 서울 도심 접근성도 개선된다.

향후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이 개통하

면 시흥시청역에서 직결·환승을 통해 여의도, 인천, 안양, 성남 등에도 연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사~원시선은 향후 북쪽으로 대곡~소사선, 경의선과 연결되고, 남쪽으로 서해선(홍성~원시)·장항선 등과 연결돼 우리 국토 서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서해선축을 형성하게 된다"라며 "통근용 전동차뿐만 아니라 일반 고속차 거리 여객 열차 및 화물열차 등도 수송하는 여객·물류 간선철도로써 기능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